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인사 올립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평안하신지요?

2020년은 수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고 지금도 그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사용한 단어 바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그 단어에 지배당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의 자리, 제한된 행동 그리고 억눌렸던 우리들의 생각으로 스스로 움츠리고 커다란 환경의 지배 속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로 인해 많이 위축된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로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 일상이 된 듯한 이 시간 성도님의 몸과 마음과 특별히 신앙의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국도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리에 거하시길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1,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던 남아공에서도 확진자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는 선교사님과 두 아들도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오늘 하루 2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갑니다, 거기에 필리핀은 13번째 달이라는 월급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12월에는 기존 월급외에 한달치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너도 나도 추가되는 한달의 월급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쓰기 위해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제목

세계 곧게 확대되는 코로나 확진이 진정되길...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많은 생명이 회복되길...

몸과 마음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코로나로 락다운이 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지속되자 마스크를 쓰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플라스틱 앞면 가리개를 할 경우에 길거리를 다닐 수 있고 열려있는 상점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 학교는 아직 인터넷 수업을 하지만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다보니 연결이 자주 끊어집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쉐마기술학교도 7개월 동안 문을 닫았었고 테스다(기술과 자격증을 총괄하는 단체)와 시청의 허가를 한 달 넘게 준비해 가며 11월 중순에야 다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에 진행 중이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한 수업들을 11월 중순부터 다시 재개한 후에 드디어 이 번 주에 중단된 수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고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을 21, 22일에 걸쳐 시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 클래스를 곧바로 열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어려운 시기에 닫혔던 학교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 클래스의 정원이 25명이었지만

12명 미만으로 모일 때만 대면 수업을 허락하고 있는 현 규정을 따라가며 반을 편성하고 매일의 방역작업이 시행 될 때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에 많은 부분이 예전하고 다른 방향에서 수업을 해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믿음 위에서 세워져가고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락다운 상태는 아이들과의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상태인지라 어린이 예배는 중단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은 락다운 이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학생들은 상점에 들어갈 수 없고 식당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찾아가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제목

비록 아이들과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들에게 매일 매일 다가가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4, 3월 초 1학년에 입학한 큰딸이 2주 동안 학교에 간 후로는 락다운으로 오늘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12월 19일 드디어 방학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처음 입학해 갖게 될 모든 학교생활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 큰아이의 머리속에 남게 될 1학년의 추억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한 것이 다 일 듯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독교 학교인지라 말씀도 많이 암송하게 되었고 찬송도 많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만 있었음에도 키도 쑥쑥 잘 자라고 훌쩍 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도 락다운이 된 이후로 유치원이 문을 닫았기에 집에만 머물러야 했지만 언니가 말씀을 암송할 때 옆에서 따라해 암송하게 되고 언니가 찬송을 암송해 부를 때 따라 불러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를 따라하다 하게 된 말씀과 찬양이지만 그 마음 밖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커가는 것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제목

어려운 시기에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이지만 몸과 마음과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2021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주님과 더불어 귀한 성탄절 보내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잠잠히 묵상하시며 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기도해 봅니다, 또한 2021년에도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주님과 더불어 잘 이겨내시길 기도해 봅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님과 저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위해 가장 작은 자리의 일일지라도 잘 감당하며 복된걸음 걸어내도록 저희 가족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정대선 최재희 소울 아울 선교사 가족 올림,